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현재¹, 김종숙^{2*}

¹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²부천대학교 뷰티융합비즈니스과

The Effect of Peer Support and Happiness of Youth Majored in Beauty on Empathy Ability

Yoo-Hyeon Jai¹, Kim Jong Sook^{2*}

¹Department of Cosmetics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Beauty Business, Bu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울산시 미용 전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미용 전공 청소년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는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용 전공 청소년 또래지지의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는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는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정서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 또래지지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긍정적정서 요인이 높고 부정적정서 요인이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peer support and feelings of happiness on the empathy ability of adolescents who majored in beauty. The subjects were 80 adolescents majoring in beauty at Ulsan Cit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emotional support and informational support, which are the sub-factors of peer support for adolescents majoring in beau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mpathy abili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instrumental and evaluative support of the peer group for adolescents in the beauty maj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athy ability. Second, examining the effect of happiness in youth majoring in beauty on empathy ability, positive emotion, a sub-factor of happi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other hand, negative emotional factor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empathy ability.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factors of peer support for the beauty major, the higher the positive emotion factor of happiness, and the lower the negative emotion factor, the higher the feeling of happiness. This study may be considered as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programs to improve the empathy ability of youth majoring in beauty.

Keywords : Beauty Major Youth, Peer Support, Happiness, Empathy, Information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 Sook(Bucheon University)

email: rwt0623@hanmail.net

Received March 15,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April 23,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서 사회생활 속에서 성장 발달을 통해 살아가면서 성장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배워가는 시기로 매우 중요하다. 배움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삶의 갈등과 어려움 중 전공의 진로 선택은 중요한 문제로 그 중에 미용에 전공을 둔 청소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미용 특성과 고등학교는 스위스의 도제 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교육 모형을 창출하여 조기 진로결정과 직무능력을 위한 기관에 속한다[1]. 미용 전공의 청소년에게는 일반 청소년과 다르게 '현재까지 중등 직업 교육 과정에서 급격히 변화되는 산업계의 동향과 노동 시장의 인력에 대한 요구 유형을 미반영함에서 오는 문제와 학교의 헤어 및 피부미용, 네일아트 등의 자격증 위주의 교육 중심과 산업 현장의 요구와 다른 직무 불일치로 오는 현장성의 부족으로 제대로 선도하지 못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2]. 또한 미용 전공의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아동기를 떠나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로 가정으로부터 독립, 개척해나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배워 나가야 한다. 즉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확실한 변화, 중요한 시기로 미래에 대한 삶의 기쁨을 위한 확립이 아닌 균형 있는 발달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 전환기, 도약점이 될 수 있는 시기로 균형 있는 성장 발달이 요구되어 진다[3]. 이와 같이 일반적인 청소년이 이 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라면 특히 미용 전공 청소년의 특수한 진로결정은 미용 산업의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4].

한편 전문적인 종사자로 미래를 준비하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관심 변인으로 공감능력을 들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내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하며[5], '상대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상호작용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다른 친구의 감정을 내가 느껴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느낀 것처럼 감정을 이입하여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서 공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7]. 즉 다른 사람의 결정과 감정 또는 고통을 함께 하거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로 자연스러움 보다 개인적 의지로 파생되는 정서라는 것이다[8].

또한 중요한 공감능력을 통해서 미용 전공의 청소년에게 생물학적, 성숙 수준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또래지지는 중요한 변인중의 하나로 대두된다. 또래지지는 '또래나 친한 친구들과의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친밀감 또는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발달 등 모든 긍정적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이 또래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이며, 비슷한 환경에서 동질성을 가진 또래와의 사회적지지, 사회적 유대 관계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 친밀감, 심리적 안정감 등의 긍정적 자원'이다[9]. 따라서 미용 전공 청소년의 자가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부모의 영향보다 크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래지지는 중요성이 나타난다[10].

이와 같이 청소년의 시기에 또래지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가진 미용 전공 청소년이 인지하는 행복감은 또 다른 변인으로 대두된다. 이는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 기쁨, 보람을 느끼며, 이 때 느끼는 흐뭇한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태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삶에 대한 만족의 상태'이다[11]. 따라서 진정한 행복감이란 '행복하다는 것을 기쁨, 평화, 좋다는 느낌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높게 생각하는 마음과 몸의 상태이다. 즉 다른 목적을 위한 추구가 아닌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12]. 위와 같이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 존재하며, 현재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서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13]. 또한 미용 전공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은 개인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의 표출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다[14]. 따라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감능력과 행복감의 타 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과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도움행동이 완전 매개하고 있음이 나타났다[15]. 이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우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자신의 심리적인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며, 이러한 친사회적인 행동은 공감능력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위와 같이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이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며,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의 변화시킬 방향 설정이나 정책적 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 상담에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지만 미용 전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용 전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용 전공 청소년들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행복감, 공감능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8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울산시의 미용 전공 청소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 총 85부의 자료를 수집한 후 연구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80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또래지지 9문항, 행복감 29문항, 공감능력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학력, 종교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최윤선[17]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또래지지 하위요인 정서적지지 3문항, 정보적지지 2문항, 도구적지지 2문항, 평가적지지 2문항 총 9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또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시연[18]이 사용한 측정도구는 행복감 하위요인 긍정적 정서 17문항, 부정적 정서 12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송지애[19]가 사용한 측정도구는 인지적 공감 10문항, 정서적 공감 20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3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주요 변수의 신뢰도 검증결과,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신뢰도는 .930의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복감의 전체 신뢰도 또한 .834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감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882로 높게 나타났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구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Peer support	9	.930
Happiness	29	.834
Empathy	30	.882

2.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고,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 산출은 Cronbach α 의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보았으며,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미용

전공 청소년의 성별은 여학생이 43명(53.7%)으로 남학생 37명(46.3%)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등학생이 44명(55.0%)으로 중학생 36명(45.0%) 보다 많이 응답하였다.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33명(41.3%), 없는 대상자가 47명(58.7%)으로 종교가 없는 미용 전공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otal(N=80)	
		Frequency	Ratio(%)
Sex	Male	37	46.3
	Female	43	53.7
Education	Middle school	36	45.0
	High school	44	55.0
Religion	Presence	33	41.3
	Absence	47	58.7

3.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3.2.1 또래지지에 대한 기술통계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또래지지 요인 전체는 $M=3.53$ 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지지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정서적지지($M=3.64$)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적지지($M=3.64$), 도구적지지($M=3.64$), 평가적지지($M=3.64$) 순으로 모두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들이 또래지지에 대한 지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for peer support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Emotional support	80	1.00	5.00	3.64	.81
Informational support	80	1.00	5.00	3.56	.95
Instrumental support	80	1.00	5.00	3.53	.96
Evaluative support	80	1.00	5.00	3.38	.88
Total	80	1.00	5.00	3.53	.82

3.2.2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 요인 전체는 $M=3.37$ 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M=3.31$) 요인 보다 부정적 정서($M=3.43$)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긍정적인 정서 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금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n happiness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Positive emotion	80	1.06	4.18	3.31	.80
Negative emotion	80	1.50	3.92	3.43	.46
Total	80	1.31	3.92	3.37	.60

3.2.3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대한 측정 변수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 요인은 최소값 1.57, 최대값 4.17, 전체 평균 점수는 $M=3.44$ 로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으로 공감능력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echnical statistics on empathy ability

Classification	N	Min	Max	M	SD
Total	80	1.57	4.17	3.44	.50

3.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행복감,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요인과 행복감 요인은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874, p<.01$). 그리고 또래지지 요인과 공감능력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873, p<.01$). 또한 행복감 요인과 공감능력 요인도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r=.787, p<.01$). 이러한 결과

는 각 상관계수 값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Classification	Peer support	Happiness	Empathy
Peer support	1		
Happiness	.874**	1	
Empathy	.873**	.787**	1

**p<.01

3.4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행복감, 공감능력과의 관계

3.4.1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에 대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78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5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68.258,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beta=.491, p<.001$), 정보적지지($\beta=.270, p<.01$)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7. The Effect of Peer Support of Adolescents Majoring in Beauty on Empathy Abi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Empathy	Constant	1.450	.125		11.597***	
	Emotional support	.302	.062	.491	4.851***	.281
	Informational support	.142	.053	.270	2.694**	.287
	Instrumental support	.035	.053	.066	.659	.284
	Evaluative support	.077	.062	.136	1.239	.240

p<.01, *p<.001

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지지($\beta=.066, p>.05$), 평가적지지($\beta=.136, p>.05$)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3.4.2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에 대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689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8.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656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5.37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긍정적정서($\beta=.952, p<.001$)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정서($\beta=.270, p<.01$)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긍정적정서 요인이 높고 부정적정서 요인이 낮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Influence of Happiness of Adolescents Majoring in Beauty on Empathy Abi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normalization factor		Standardization factor	t/p	Tolerance limit
		B	Standard error	β		
Empathy	Constant	2.026	.263		7.706***	
	Positive emotion	.599	.071	.952	8.482***	.320
	Negative emotion	-.167	.122	-.154	-1.369*	.320

*p<.05,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가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 정보적지지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에 대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785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78.5%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957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68.258,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정서적지지($\beta=.491$, p<.001), 정보적지지($\beta=.270$, p<.01)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지지($\beta=.066$, p>.05), 평가적지지($\beta=.136$, p>.05)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도구적지지, 평가적지지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는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공감능력에 대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²값이 .689로 나타나 전체 변동의 68.9%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D-W(Durbin Watson) 값이 1.656으로 0이나 4에 가깝지 않아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차한계는 0.1 이상이며, VIF 값은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회귀모형(F=85.375, p<.00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의 하위요인별로 영향력을 살펴보면, 긍정적정서($\beta=.952$, p<.001)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부정적정서($\beta=.270$, p<.01)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 요인이 높고 부정적정서 요인이 낮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도구적지지와 평가적지지 요인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이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는 공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행복감 하위요인인 긍정적정서 요인이 높고 부정적정서 요인이 낮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미용 전공 청소년 또래지지의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요인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긍정적 정서 요인이 높고 부정적 요인이 낮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래지지와 행복감은 공감능력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8,10,11].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또래지지와 행복감,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 미용 전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미용 전공 청소년의 측면에서 또래지지와 행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조사방법상의 한계 부분에 있어 조사결과를 확대 해석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까지 미용 전공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용 전공 청소년의 개인 변인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또래지지와 행복감, 공감능력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용 전공 청소년의 미래를 향한 성장 발달과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B. H. Lee,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with Academic Major and Career*

- Awareness among Students from Cosmetology High School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Honam University, pp.8-10, 2017.
- [2] J. A. Son, *A Search on the Satisfaction of Beauty High School Based on NC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pp.65-66, 2015.
- [3] S. M. Yu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s and Their Recognition of Health*,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p.43-46, 2014.
- [4] S. H. Baek,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beaut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s educational satisfaction with NCS-based course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tention : focus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pp.88-92, 2020.
- [5] W. Y. Chun, *Development of a Test Scale of Young Children's Empathic Ability for Teacher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102-112, 2016.
- [6] E. O. Kim,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of children's rights on respect of children's rights : mediating effect of empathy*,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pp.85-98, 2019.
- [7] S. H. Song, *The Effects of a Child's Empathy and a Mother's Empathy on a Child's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pp.33-38, 2014.
- [8] S. Y. Lee,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Sympathy-Based Discussion Instruction Model for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pp.192-205, 2016.
- [9] G. M. Yun, *The Influence of Family support and Peer Support on Rational Career Decision Making of Out-Of-School Youths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pp.101-117, 2017.
- [10] J. E. Choi, *A comparison on the influence of family's-peer's-teacher's Support on Self-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pp.47-51, 2010
- [11] S. J. Kim, *The Effects of Job Stress, Interpersonal Ability, an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Child Care Teacher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Woosuk University, pp.68-76, 2020.
- [12] D. W. Jo, *The Survey of Teacher's Perception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blematic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pp.57-61, 2006.
- [13] M. R.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Well-being and Commit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pp.55-65, 2010.
- [14] G. H. S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s and Their Recognition of Health*,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pp.61-69, 2013.
- [15] E. J. Kim, E. J. Chung, "The Influence of Empathy Ability on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Gratitude Tendency and Helping Behavior -",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18, No.2, pp.592-601, 2018.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8.18.02.592>
- [16] Y. H. Ko,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program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94-103, 2011
- [17] Y.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er Support and Family Conflic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pp.62-66, 2019.
- [18] S. Y. Kim, *Analysis of the structure am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sense of happiness, enthusiasm for the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with their jobs, efficacy, and interactions with young childre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p.50-58, 2014.
- [19] J. A. Song,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athy Reading Education on Empath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pp.60-62, 2018.

유 현 재(yoo-Hyeon Jai)

[정회원]



- 2020년 8월 : 건국대학교 대학원
향장학과 (향장학석사)
- 2021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대학원 화장품공학과 재학

<관심분야>

미용예술, 미용교육

김 종 숙(Kim-Jong Sook)

[정회원]



- 2011년 8월 :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학석사)
- 2015년 8월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미용경영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부천대학교 뷰티융합비즈니스과 교수

〈관심분야〉

미용예술, 미용교육